에너지절약이란?

김신도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참다운 에너지 절약은 기기의 효율향상과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매일 매일 걸프만 사태의 속보가 계속되고 있다. TV로 전쟁의 중계를 보고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생활이 에너지의 수급 문제로 먼 이국의 사태와 직결되고 있음을 보면서 한편으로 씁쓸한 아쉬움을 갖는다.

올라갔을 때 내려올 것을 생각하고 위에 있을 때 떨어질 것을 생각하며 항상 유비무환의 자세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술개발이나 대체에너지 개발을 계속해 왔다면 이렇게 석유를 사기 위해 장사진을 이루고 곧 무슨 일이 일어날 듯이 호들갑을 떨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해도 3저의 호황을 누렸고, 신흥공업국가로서 많은 부가 축적되어 세계인의 이목을 모았으며, 오히려 과소비에 주의를 해야 했던 시절이 먼 예전의 꿈 속에서나 보듯 지금 우리들의 생활은 너무나도 위축되고 있다.

마치 "개미와 베짱이"에서 겨울이 와서 구걸을 다니는 베짱이의 신세가 우리나라의 실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사용하지 않는 전등을 끄는 것과 실내온도를 쾌적한 상태로 하기위해 보일러를 끄는 것은 에너지

절약이 아니다. 이는 절약 이전에 당연히 해야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참다운 에너지 절약은 우리 삶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도 절약될 수 있도록 기기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쓰지않고 버려지는 에너지를 알뜰하게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여유있을 때 이러한 연구와 개발에 주력하였던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자동차 10부제라든가, 온도를 낮추어서 추위에 떨고, 컴컴해도 전등을 켜지 못하고, TV방영시간을 줄이고, 엘리베이터를 격층으로 운행하는 등의 생활에 피해를 보면서 피동적으로 실행하는 기름절약의 어려움을 이렇게까지는 겪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더우기 자동차의 5부제 운행이라든가 더한 절약방안이 제시되어도 이에 대한 반대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실질적으로 걸프만 사태가 악화되어 기름의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전력수급과 난방에서부터 어려움이 있으며, 각종 공장의 조업에 지장을 줌으로써 공업과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가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아직까지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당연히 기름의 공급이 배급제가 되고 5부제가 아니라 2부제가 될지도 모른다. 또한 국내외적인 위기에서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국가시책에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생각만해도 끔찍하고 이렇게 되지 않고 빨리 원만히 걸프만 사태가 끝나기를 비는 마음 간절하다.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개발에 노력을

우리 주변을 뒤돌아보면 실제로 많은 낭비도 있었다. 더우면 밸브를 잠가야 되지만 같은 값인데 뭐 어떠냐고 반소매옷으로 문을 열고 생활한 적이 있는가 하면, 내 돈으로 내가 쓰는데 어떠냐고 아직은 쓸 수 있는 많은 물건들을 버리고 과시욕과 과소비 속에서 가치관이 흔들린 죄 값이라고 생각한다.

한 예로써 외국에서는 쓰레기에서 재활용을 최대로 하고 나머지는 소각시켜서 쓰레기의 마이너스적 가치를 열로, 전기로 이용함으로써 플러스적 가치로 변환시켰지만 우리는 그저 매립에만 의존하여 난지도의 문제로만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

그동안 우리 생활에서 가장 많이 변한 것이 설비라고 생각된다. 더우기 최근에는 Home Automation System이나 사무자동화, 공장자동화 등의 각종 전자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쉽게 건물의 각종 기능을 제어할 수 있게 되고 있다. 이러한 정밀 제어로써 조금이라도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 예전의 양적인 요구에서 질적인 요구가 강해지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우리 개개인의 생활이 윤택해짐으로써 환경의 질에 대한 요구도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저 난방만을 설비였다고 생각하다가 이제는 냉방에도, 조명에도, 실내공기의 질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에너지 소비는 급증하고 있다. 이렇듯이 늘어난 우리의 살림을 하루 아침에 적게 축소시킨다는 것은 많은 무리가 있다. 또한 이러한 에너지의 소비는 그 이면에는 많은 환경의 파괴라는 다른 얼굴이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기름이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에서는 에너지의 위기와 상관없이 에너지 절약은 생활화되어야 한다. 다시금 에너지의 걱정이 조금이라도 완화가 되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에너지의 절약, 환경의 보호를 위한 기술개발과 연구에 힘을 써야할 것이다.

언젠가 또 다시 에너지의 위기는 찾아올 것이니까.